

건축가·건축주가 함께 쌓아올린 삶·공간 드라마

우주를 짓다

윤주연 지음



여섯 개의 독립서점으로 이뤄진 고창서점 마을이 얼마 전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힘든 여정이 예상되는 일이기에, 인터뷰 당시 “적정한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실험해보고 싶다”는 책방지기들의 말을 들으며 ‘적장’이라는 단어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게 됐다.

이름에는 정체성이 담겨 있다. ‘적장건축’이라는 이름을 접했을 때, 이 건축사무소가 짓는 집의 모습이 궁금해졌다. 흔히 ‘건축가가 지은 집’하면 연상되는 것들과는 다른 요소들이 집에 담기고, 집을 짓는 과정에서의 소통법도 다를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다.

윤주연 호남대 건축학부 교수가 쓴 ‘우주를 짓다’는 한 편의 드라마처럼 짜여진 ‘집의 탄생기’다. 건축주와 건축가가 처음 만나는 장면부터 시작해 술한 결정을 내리고 시공한 후 마침내 입주에 이르기까지 두 주체가 함께 완성해간 이야기는 흥미롭다.

“집 좀 지어줘.” 네덜란드 베를라헤 건축학교를 졸업하고 네덜란드와 중국의 건축사무소에서 일하던 저자는 친구의 제안에 처음으로 단독주택을 설계한다. 4인 가족을 위한 땅콩집을 짓는 과정에서 그는 “집이 단순히 도면으로 만들어진 구조물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이 담기고, 시간이 쌓이고, 관계가 회복되고, 건강이 돌아오는 작고 조용한 기적의 그릇”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바로 건축사무소를 연다. “적당한 타협점을 찾는 데 그치지 않고, 뻔 것도 더할 것도 더 이상 없는 상태가 건축의 적정함”이라는 비전을 담고서다.

책의 주인공은 저자가 40대 부부와 함께 완성시킨 단

독주택 ‘우(宇) 주(宙)’다. 이야기는 건축 상담을 ‘오늘 당장’ 하고 싶다는 한 통의 전화로부터 시작된다. 건축주는 아내의 암 완치 5주년을 기념해 ‘우리집’을 지어 살고 싶은 부부로 ‘건축가가 만들었지만 건축가가 만든 것 같지 않은 집’을 원했던 그들에게는 집에 대한 ‘열한 가지 구체적인 소망들’이 있었다. 저자는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건축주가 가진 특별한 아이디어를 내고, 자유로운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어 2층 테라스를 제안한다.

‘아침에명상&요가(일출이 보이던 금상첨화)’라는 소망을 들은 저자는 일출을 볼 수 있는 창을 내고, 건축주가 땅을 선택한 이유였던 아름다운 서향의 시원한 풍광을 즐기며 뜨거운 별은 피할 수 있도록 처마를 선택한다. 또 남향의 장점을 살리며 빛을 받아들이기 위해 천창의 아이디어를 내고, 자유로운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어 2층 테라스를 제안한다.

책에 관해서는 집 주인의 삶에 맞춘 처방이 옳다는 생각에 요리를 즐기는 남편을 위해 주방에 책장을 마련하고 야외와 시선이 연결된 반신욕탕, 자주 오는 친구들이 재밌게 보내면서 주인의 사생활은 방해하지 않는 공간 등도 함께 만들어간다. 저자는 비용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욕심 타일 줄은 50밀리미터가 안 맞아서 벽을 뜯어서 옮기는 결단을 내리며 골칫거리였던 마당의 돌을 파내지 않고 오히려 조경의 요소로 활용해



윤주연 건축사가 설계한 경기도 양평 단독주택 ‘우주’.

〈헤이박스 제공〉

집에 독특한 매력을 부여하기도 한다.

“공간에 대한 마음의 처방까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간 주치의”가 건축가라고 믿는 저자는 “집을 짓는 일은 단순한 시공이 아니라 삶의 방식과 철학을 공간 안에 녹여 내는 일”이기에 “숨겨진 마음마저 공간으로 번역해서 설계에 담는 노력은 건축가의 의무”라고 말한다.

책에는 새 집 짓기 전 지금 집에서 확인할 부분 등 건축주를 위한 건축가의 조언 등도 담겨 있다.

흥미로운 ‘우주 탄생기’를 읽고 나면 우주의 공간에 꼭 한번 발을 들이고 싶어진다. 저자는 이 책이 ‘예비 건축주에게 보내는 연애편지’라고 말하는데, 편지를 받아든 이들은 아마 자신의 소망이 담긴 집을 상상하며 행복해할지도 모른다.

〈헤이박스·2만2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한글 연대기(최경봉 지음)=훈민정음 창제에서 오늘날까지 한글의 600년을 시간 순으로 짚는 기록. 창제와 보급, 언문·국문·한글로 이어진 이름의 변화, 신문·사전·어문규범 논쟁, 타자기와 휴대전화 자판 등 ‘쓰기의 기술’까지 엮어 한글이 한국어와 사회를 어떻게 바꿔 왔는지 보여준다. 짜아짜아 문자 채택·SNS 한글 표기·웹 사전 ‘우리말샘’ 등 세계화 사례도 담았다. 〈돌베개·2만5000원〉

▲5번 플랫폼의 사람들(클레어 폴리 지음, 최리외 옮김)=매일 같은 기차 3번 객차에 앉는 고민상당가 아이오나는 출근길의 ‘침묵 규칙’을 지켜 온 인물이다. 어느 날 우연한 사고를 겪으며 규칙이 깨지고 은행원 피어스와 고등학생 마사 등 ‘기차 친구들’이 서로에게 말을 건다. 각자 불안과 고민을 안은 이들이 연결되고 일상의 문제를 풀어 가는 과정을 유머와 온기로 그린 출근길 휴먼 코미디. 〈문학동네·1만8000원〉

▲사이클(에드워드 R. 듀이 외 지음, 이경식 옮김)=‘주기론의 바이블’로 불리는 고전이 약 반세기 만에 복간됐다. 대공황 이후 수십 년간 경제·정치·자연·우주의 반복 패턴을 연구한 저자는 “세상의 모든 움직임에는 주기가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주가와 금리, 전쟁과 혁명, 태양 흑점과



기후 변화까지 이어지는 ‘반복의 질서’를 데이터와 도표로 풀어내며 과거를 통해 미래를 읽는 방법을 제시한다. 〈청림출판·2만2000원〉

▲문명교류학(정수일 지음)=실크로드 연구의 거장 정수일이 평생의 성과를 묶은 결정판. 문명의 자생·모방에 ‘공유성’을 더해 문명 개념을 재정의하고, 동서·가치·환경의 차이에서 비롯된 상이성과 교류의 역사를 체계화했다. 토인비·헌팅턴 등 기존 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호혜적 교류가 이끄는 ‘범지구적 보편문명’이라는 대안을 제시한다. 〈창비·5만8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별 하나 꽃 하나(김유진 엮음, 천유주 그림)=윤동주·김소월·정지용 등 우리에게 익숙한 시인들의 동시를 한데 모은 시집. 방정환, 권태음, 서덕출 등 동시단의 기를 닦은 작가의 숨은 보석 같은 작품들도 함께 실려 있다. 어린이의 ‘첫 시 읽기’에 어울리는 맑고 고운 언어로,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되새기게 한다. 따뜻한 색감의 그림이 시의 여운을 깊게 감싼다. 〈자음과모음·1만8000원〉

▲안 될 거 없지(애덤 렉스 지음, 로라 박 그림)=참깨와 새, 거북이와 곰이 힘을 모아 ‘세계북아름’이 된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협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동물들의 이야기다. 평화로운 호수가를 지키

기 위해 나선 이들의 유쾌한 모험 속에는 연대와 공존의 메시지가 담겼다. 도시 개발로 자연이 사라지는 현실을 비틀어, 함께라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희망을 전한다. 〈노랑상상·1만7000원〉

▲맞춤법 GO!(김남미 지음)=외우기만 하던 맞춤법을 ‘이해’하며 배우는 우리말 탐험기. 띄어쓰기와 발음, 외래어 표기, 높임말 등 어려운 규칙을 게임처럼 ‘스테이지’별로 풀어가며 익힐 수 있다. ‘되·돼’ 구분부터 문장의 구조까지 우리말의 원리를 단계별로 설명해 글쓰기 자신감을 키워 준다. 외우기보다 원리를 이해하며 우리말의 재미를 느낄 수 있다. 〈북트리거·1만7500원〉

자연과 삶을 예측했던 가슴 따뜻한 ‘점성술가의 노래’

구름 사내

주영국 외 지음



하늘과 바람과 구름 그리고 바다를 보며 시인의 감성을 응송길게 구렘했던 신안 출신 고(故) 주영국 시인. 지난 2022년 세상을 떠난 주 시인은 “탄탄한 시적 구조와 절제된 미학으로 그만의 개성적인 시편을 보여준” 문인이었다.

지난 1962년 신안에서 태어난 그는 신안에서 초·중·고교를 마치고 고등학교는 진주로 떠나 항공고에 진학한다. 이후 공군에 입대해 기상관측관으로 복무했으며, 2018년 공군 원사로 명예 전역한다.

지난 2010년 ‘시와사람’ (여름호 통권 57호) 신인상으로 등단했지만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러다 2019년 첫 시집 ‘재점을 치는 저녁’을 상재하면서 본격적으로 창작활동을 펼친다. 광주전남작가회의 김완 회장 시절

사무처장을 맡아 지역 문학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틈틈이 문학에 대한 갈증을 시 창작을 매개로 풀어냈다.

고인의 3주기를 맞아 동료 문인들이 유고시집 ‘구름 사내’ (푸른사상)를 엮어냈다. ‘주영국 유고시집 간행 위원회’ (위원장 김완)가 주축이 돼 발간한 작품집은 “가슴 속 더운 비밀을 세상에 불게 터뜨리고 싶었던 주영국 시인”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의미를 담았다.

이번 시집에는 첫 작품집 ‘세점을 치는 저녁’에 수록하지 않았던 51편과 ‘시작노트’에 육필로 쓴 작품 등이 담겨 있다. 주 시인에게 ‘기상 예측’은 다른 아닌 인간을 예측하는 방편이었을 것이다. 변화무쌍한 날씨를 보며 아니 예측할 수 없는 기상을 가늠하며 그는 삶과 사람, 그 너머의 세계를 상상했을 것이다. 그는 ‘예측하고’ ‘점’을 치는 ‘우리 시대의 가슴 따뜻한 점성술가’였다.

유고시집에는 주 시인이 생전에 인연을 맺었던 문인들이 쓴 추모 시와 산문도 있다. 강대선, 김수, 김관, 박관서, 홍관희, 박재용, 김석영, 함진원, 강경아, 조현욱, 김육중, 한영희, 이철경, 이상범, 성미영, 오하린,

문은희, 강희정, 한경훈이 쓴 시는 울림을 준다. 고인의 연보는 이승철 시인이 기록했다.

한경훈 시인은 ‘회억’ (回憶)이라는 작품 뒷 이야기에서 “나는 처음과 마지막 그의 주치의였다. 시작과 끝을 알고도 모른 척했던 내가 원망스럽다고 했다. 쓸쓸해 보인다고 그때 말할 것을 나는 하지 못했다”고 했다.

김관 시인은 고인의 첫 시집 발간 당시 “언어의 발랄함, 신선함, 감정의 커다란 진폭, 두근거림, 설렘은 보이지 않고 감정을 곱삭해 잘 숙성시킨 언어로 시를 이끌어가는 탄탄한 구조로 절제된 힘”을 선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아마도 주 시인은 하늘과 바다, 땅의 경계가 없는 장엄한 저편의 세상에서 무장무예의 필력을 자유롭게 구사하고 있을 것 같다.

한편 유고시집 발간을 기념하는 출판회가 17일 오후 4시 5·18기록관에서 열린다.

〈푸른사상·1만6000원〉

/박성진 기자 skypark@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1985
2025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

전문건설인
대한민국을 세우다!

「대한전문건설협회」 40주년 혁신적인 건설문화를 선도합니다!